

## 총학 출범식... 등투결의등 새롭게

### 학생회운영 체제 정비로 돌파구 모색 경주 자치기구와 연합 학자투진군식 가져

서울·경주 총학생회 출범식이 오늘(27일)과 내일(28일) 각각 열린 등록금투쟁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한편,

본격적인 학생회체제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캠퍼스 제23대 총학생회는 오늘(27일) '등록금투쟁 승

리결의대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대총학 지지를 출범식까지 지속시킬 예정이다.

또 경주캠퍼스 제8대 총학생회는 출범식을 학생자치기구와 연합으로 거행하며 학자투진군식을 통해 등록금투쟁을 다짐하는 결의식을 가질 계획

#### 감사 시행세척 확정 1·4분기 감사 내달 12일부터

제23대 총대의원회(의장=김득연·국문4)는 지난 22일 각단 대의장을 선출하고 감사시행세척을 확정했다.

각 단대 대의원 의장을 보면 △불교대=황중기(불교4) △문과대=이선주(국문3) △이과대=김상배(물리4) △법과대=김영수(법4) △경상대=최일환(회계3) △사과대=진동국(경외4) △농과대=박윤석(농학4) △공과대=김경수(전자공2) △사범대=윤승범(국교4) △이부대=이명덕(아간무역3) △예술대=김현권(미술4) 등이다.

지난 22일 열린 중앙위원회는 또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감사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달 2일부터 감사시행세척 예정 초안을 작성, 세차례에 걸쳐 심의해온 감사시행세척 예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한편 총학생회칙과 제정된 감사시행세척에 의거한 1·4분기 감사를 위해 중앙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득연·총대의장)가 지난 22일 구성됐다.

중앙감사특별위의 구성은 감사시행세척 제4조 제1항(중앙감사특별위는 감사시행 20일전까지 구성해야 한다)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이번 1·4분기 감사는 동계방학을 포함한 신입생예비학교, 신입생현황, 단체 출범식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4월12일부터 20일안에 시행하게 되며, 총학생회를 비롯한 모든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시행세척을 중앙감사특별위의 학생자치기구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오는 29일 확정, 시달할 방침이다.

'제23대 총학생회 출범식'이 내일(28일) 오후2시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단대별 사전 단위토론, 지역별 결의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열릴 출범식은 총학생회기인수인계식 및 신서식, 총학생회장인사말, 총학집행부소개, 초청인사소개 및 축사, 아리랑·동국문화의 축하공연, 총학생회 출범선언문선독 순으로 진행되며 민주통분회 간부들과 역대 총학생회장들이 초청된다.

식후 행사로는 중문까지 출발진군식을 갖고 만해광장에서 단대별 자기자랑과 땀뿌이로 단합대회를 갖는다.

경주캠퍼스 제8대총학생회및 학생자치기구 출범식이 등록금투쟁에 있어 고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총학생회, 제7대대학총회, 제

5대인문대, 제4차자연대, 제3대 상경대학총회, 제6대학총회까지 위헌투쟁이 오늘(27일) 오후1시 결의(탈매)를 시작으로 연합 출범식을 갖는다.

등록금투쟁 분위가 고조를 위해 연합으로 진행되는 이번 출범식은 1부 출범식, 2부 학자투진군식으로 이번 주가 등투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학자투진군식은 연부생보고, 서울캠퍼스 상황보고, 투쟁결의문 낭독등의 순으로 진행한 뒤 결의식을 가진후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제5대의과대학총회출범식이 오늘(27일) 오후4시 의학관(총학강의실)에서 열리며, 제4대법정대학총회 출범식이 내일(28일) 오전10시 진흥관앞 통일광장에서 체육대회와 함께 열린다.

제5대동아리연합회 출범식은 오는 28일 낮12시30분 녹야원에서 열린 예정으로 총학및 단과대 자치기구가 오늘과 내일 일제히 출범식을 갖고 등투의 승리를 위해 각 기구별등투와 단식, 절거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경주캠퍼스 부총장에 신현재(영문학)교수가 지난 20일 열린 경주캠퍼스 교수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됐다.

## 경주부총장에 신현재교수 선출

### 재단-교수-학생 3주체 조화운영에 역점

경주캠퍼스 부총장에 신현재(영문학)교수가 선임됐다. (관련기사 7면)

경주캠퍼스 부총장선출을 위한 교수총회가 지난 20일 오후 5시 총1백61명(해외연수4명,

후리1명 제외)의 교수중 1백여 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소강당II(원효관4층)에서 열렸다.

이날 선거에 앞서 교수들은 부총장후보직선 여부를 거수로 반대없이 결정하되 곧바로 부총장후보 선출에 들어갔다.

각 단과대별 선거관리위원 1인씩을 선임한후 무작위 투표로 실시된 부총장후보선출 1차 투표에서는 총88명이 투표, 신현재(영문학)교수 53표, 김형수(국문학)교수 25표, 김시배(경제학)교수 4표, 김갑주(국사학)교수 2표, 신근재(일문학)교수 2표의 순으로 5명이 선출됐다.

1차투표에서 1위로 선출된 신교수는 소견발표를 통해 "부총장은 총장이 공약사항을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도와주는 직책"이라 전제하고 "누가 부총장에 선임되더라도 경주캠퍼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부총장에 선임되지 않더라도 재단-교수-학생 3주체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위로 선출된 김형수교수는 "교수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경주캠퍼스가 하나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하나된 경주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후보사



신현재 부총장

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갑주교수도 사회의사를 밝혔으며 김시배교수와 신근재교수는 불합으로 소견발표를 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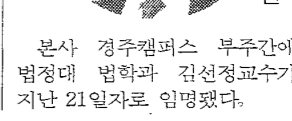
이날 실시된 2차투표에서는 총99명이 투표, 신현재교수 82표, 김형수교수 9표등으로 2인을 선출했으나 김교수의 후보사퇴로 신현재교수 1인의 부총장후보 추천이 결정되었다.

한편 경주부총장 직선인정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민병천총장은 "1인후보추천에 직선을 인정하고 안하고 할게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 29·30일 최종등록

경리과는 지난18일부터 23일까지 있었던 연장등록에서 서울, 경주의 신입생, 복학생, 재학생, 장학생등을 모두 포함, 77%의 등록률을 보였다고 발표하며, 오는 29·30일 양일간 최종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등록기간 선정은 다음달 8월에 있을 교육부 학사보고에 맞춰 지난25일 교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김선정 부총장

본사 부주간 김선정교수가 지난 21일자로 임명됐다.

## 교수회-평교협 교수총회 모색

### 황교수 탈락 대책방안 논의

황필호(철학)교수제임용탈락 통보를 받은 교수회는 지난25일 오후4시30분 평교협교수들과 지난18일 황교수제임용탈락 결정으로의 교수회 입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18일 황교수제임용유보에 대한 경우-근거-대책을 묻는 교수회의 요청에 대해 교인

사위원회는 지난22일 공문을 통해 "황교수제임용은 유보가 아닌 탈락이며 교원인사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사립학규에 의해 최종결정이 재단으로 넘어간이상 학교로서는 답변할 사항은 없다"고 밝히고 있어 황교수제임용탈락 대책마련을 위해 교수회는 교수총회등 교수회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제2차 의장단회의'를 오늘(27일) 오후4시교수회사무실에서 연다.

한편 지난25일 철학과간담회

많은 밤나기가 되는 것이고 인간사는 무엇보다 제자리에 놓이지 않는 혼돈 그중만이 되고 말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임의로 짓는 죄이다. 인간은 무명의 것보다 유명의 것에 매료되어 살기 마련이고 아울러 무명의 것에 대한 경의심이 크면서도 유명의 것에 용해되고 마는 것이 인간의 나약성이 아니고 무엇일까. 현대인은 녹음기나 마이크로 앞에서 목청을 바로 잡으며 얘기한다. 그러나 산하대지 頭頭物物이 녹음기인줄 모르고 쉽게 쉽게 흘러버리는 口實은 사람이 경계해야 할 일 가운데 으뜸이라고 생각한다.

삼일정정은 자기정화의 근간으로서 환경문제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의 각 구성원간에 상호이해의 요체가 될 것이다. **崔玄燮**

노조 직급 정년제 시정요구  
김무성씨의 4명 해고 보류

본교 직원노조는 직급정년제에 의해 지난달28일자로 부당 해고통지를 받은 김무성(도서관사)씨의 4명의 인사직원의 복직여부를 놓고 지난22일 이항우총무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에 처음으로 직급정년제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게 된 김무성씨는 지난 87년에 직급정년제(직사직급 45세)에 의해 해고된뒤 이후5년동안 인사직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직급승진이 없어 해고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항우총무처장과 면담결과 "이번 김무성씨는 해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

주변에 생수가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보면 환경오염이 대단한 모양이구나 쉽게 느낄 수 있는 일이고, 약수터에 준비하게 들어갈 열병식을 방불하게 하는 약수통 용기에 식수의 중요성을 한층 더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한 골지의 회사에서 부당한 폐수처리로 인하여 낙동강 일대의 식수는 물론이고 생태계에 지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폐수공해의 심각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 定業不滅이라는 말이 있다. 오늘날 환경오염의 문제도 이와 똑같은 말이 될 것이다. 생태학의 한 단면을 보기도 하자. 늪지대에 모기가 많아서 이 모기를 없애려

**보은수**

고 DDT를 뿌렸다. 그랬더니 원하는데로 모기는 사라져 편안하게 되었다. 그런데 물에 용해되어 없어지고 말았어야 될 DDT성분은 없어지지 않고 해초에 그 성분이

다 산하대지에만 만연되어 있는 오일을 놓고 말한다는 것이 어찌 인간사 부질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폐수를 마구버린 인간성을 원론적으로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대안은 무엇일까. 불교에서는 三業淸淨을 수행의 본간으로 삼고 있다. 몸으로 살생과 도둑질,

삼업을 淸淨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고, 입으로는 거짓말, 꾸밈말, 양설, 악구를 하지 않으며, 뜻으로는 탐하는 마음(탐심), 재중내는 마음(진심), 아는 게 허는 마음(치심)을 하지 말라고 제시하고 있다. 몸·口·뜻가 자유분방하게 놀아나 통제할 수 없게 될 때 사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

주변에 생수가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보면 환경오염이 대단한 모양이구나 쉽게 느낄 수 있는 일이고, 약수터에 준비하게 들어갈 열병식을 방불하게 하는 약수통 용기에 식수의 중요성을 한층 더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한 골지의 회사에서 부당한 폐수처리로 인하여 낙동강 일대의 식수는 물론이고 생태계에 지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폐수공해의 심각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 定業不滅이라는 말이 있다. 오늘날 환경오염의 문제도 이와 똑같은 말이 될 것이다. 생태학의 한 단면을 보기도 하자. 늪지대에 모기가 많아서 이 모기를 없애려

##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광고

### 자, 이제 당당하게 신문사로 오십시오



꿈과 열기왕성한 새나이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대학생활의 낭만을 찾아 아깝도 방황하는 새나이를 없애고, 대학생활의 모든 것을 동대신문사가 책임지겠습니다. 어서 달려 오십시오.

당, 자기전망을 세워야 합니다. 기자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증도에 탐착하는 기자도 많습니다. 투철한 자기전망만이 힘든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산처럼 다가오는 고난과 고민을 깨뜨리는 파격속에서 자신을 발전시킬 신념에 찬, 새나이를 기다립니다.

자, 이제 당당하게 신문사로 오십시오.

- ◇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명
- ◇응시자격: 1학년 남·내재학생
- ◇모집분야: 일반 및 만화·컷·사진기자
- ◇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원서접수: 서울 3월28일 오후4시까지  
경주 3월21일 오후4시까지
- ◇시험일자: 서울 3월28일 오후5시  
경주 3월21일 오후5시
- ◇시험과목: 1차 필기-국어·상식·작문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 ◇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 ◇시험장소: 학원관 201(서울캠퍼스)  
원효관 A301(경주캠퍼스)

동대신문사

### 사설

## 힘있는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당부

학생회가 등록금부정에 대응해 다른 사업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총대의원회는 총학생회를 비롯한 재학생자치기구에 대해 사업계획서 제출지연을 들어 '경고장'을 띄웠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총학생회, 예술대, 학자부위원회등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사업계획서가 예산분배 및 감사에 중요한 자료임을 물론이고 내일이 총학생회식이라는 것을 생각할때 11월 선거이후 세 달여의 기간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등록금부정에 임하는 학생회간부들의 피말린 수고에는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또 학자부에서 등록금부정이 차지하는 큰 몫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등록금부정이 학자부와 학생회사업의 전부가 아니기에, 대두되는 다른 사업에 대한 준비를 떳떳히 당부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코앞에 닥친 총학생회 출범식을 대증적으로 1만 학우의 열렬한 환호속에서 치우려 한다. 학생들의 대표적적이고 지지기반이 가장 넓은 총학생회의 힘찬 발걸음을 확인하고 제23대 총학의 출범을 당당히 선언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곧 4월에 접어들면 구국의 강령대

오 진대협출범과 4-19, 메이데이총파업, 5·18로 이어지는 정치투쟁 일정이 짙게 깔려 있다. 수서비리규탄, 기만적 지지세력, 페놀식수오염등에 청년학도의 가열찬 투쟁이 곳곳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다. 현재 동아내에서도 '대중투쟁체 건설모임', '학부위준비위' 등의 명의로 대자보가 총학생회의 정치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학내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이제는 준비된 것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당부하건대 자주적 학생회건설 원년을 선포하고 학원자주화투쟁의 성화를 지펴올리겠다는 제23대 총학의 다짐이 굳건히 지킬 바리데기 간부들의 혁신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는 바램을 지을 수 있다.

학우들은 간부들의 관료주의적이고 무사안일적인 사업자풍을 관망하지만은 않을 것이며 간부들은 뒤에 항상 일반 학우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간부가 각단위의 의견들을 모아내지 못하고 상층의 결정을 힘있게 집행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대표이길 원하지 않는다.

학생회 간부들이 등록금부정에 열심인 편만들 결단은 신속하게 내리고 다른 사업에 또다시 북을 때고 뛰어드는 부지를 보고 싶다.

## 아랍민중의 피로 미국은 살피려 하는가

페르시아만 전쟁 준비의 분담금 문제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페만전쟁 당시 TV로 생중계되는 최초의 전쟁이라 떠들며 마치 비디오게임을 보듯이 경의를 위하여 이라크라는 적을 물리치는 작전을 일으켰던 자칭 '세계의 헌병' 미국이 분담금을 밀미로 드디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말았다.

분담금의 산출과 산출된 분담금에 대하여 각국에 요구하는 근거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페만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의 전비를 부담하는 원칙을 내세우고 동맹국이 분담금 총액 5백40억 달러를 지원하게 했었고 여기에 우리나라도 2억8천만 달러를 약속했다. 그러나 우연히도 비슷한 시기에 미의회 예산국은 보고서를 통해 예상 전비 총액을 4백50억달러로 추정했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문제는 그 둘의 산출 근거가 최소한 6개월이상의 전쟁기간을 상정했었다는 것과 더욱이 여기서 생긴 차액이 어떻게 누구를 위해 쓰여 질 것인가이다.

이렇게 볼 때 전쟁이 조기 종전된 상황이기에 분담금을 내기로 약속했던 근거가 미약해졌고 또한 미국도 이를 고려해 분담금의 액수를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하는 것이 외교상의 관례를 떠나 인간적인 도리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어떠한 태도를 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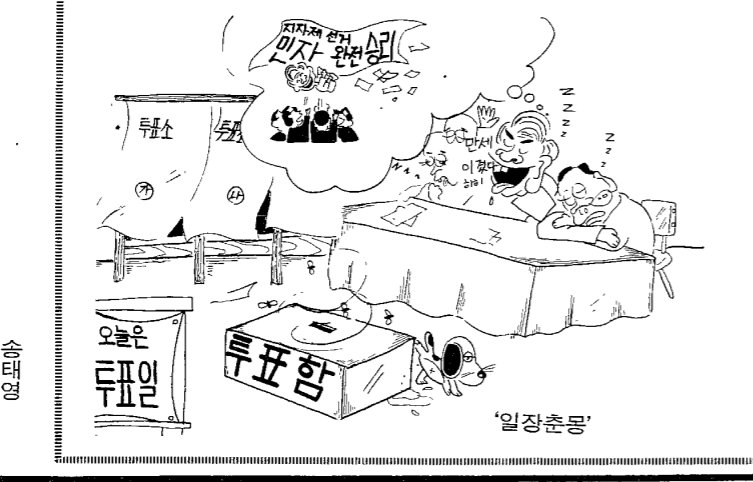
하고 있는가. 분담금이 미납된 국가에 대하여는 무기판매 금지와 비탄원 제재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고 피츠워터 백악관 대변인인 사람은 동맹국의 지원금이 실제 경비보다 초과될 경우 반환하겠다고 말하고 덧붙여 '금액이 남는 일은 없을 것'이라 '호인장'했다.

이러한 사실로만 비추어 지금까지 4·3 항쟁등 역사속에서 미국을 보지 못한다면 과연 미국은 우리와 세계에 어떠한 존재인가 더욱 확인해준다.

우리는 단순히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간의 돈줄을 누가 끊고 그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페만 전쟁으로 누가 피를 흘렸으며 그 피의 맺기가 아랍민중 당사자가 아닌 제국열강간의 돈으로 표현되는 것에 분노한다는 것이다. 페만 전쟁이 종전된 이후에 군사복합체라는 거대한 자본주의 최후의 상징물을 되살리기 위해 미국이 '돈제산'에 발악하는 모습에서 이번 전쟁이 누가 무엇을 위해 일으킨 전쟁이며 그들의 실체가 무엇 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엔 열리는 중동지역 평화회담에서 제기될 평화 유지비가 허울 좋은 힘의 균형을 위해 무기구입으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東國漫評



일장춘봉

### 목 먹 골

- 학보미 이용 안내...  
안녕하세요, 동아의 일꾼 여러분의 귀뜸이 쪼롱스입니다. 제1호 이번에도 학보미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학기에 학우여러분이 자동관에기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손실반환금(돈만 먹고 내용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으로 학보미를 1만장 만들었는데 10월도 가기전에 동이 나 버렸어요. 이번에는 방학기간중 발생한 손실금으로 4만 8천장을 만들었습니다. (소요예산 350,000W)  
-찌름스
- 지리교육과 언니와 형이께.  
신배님들이 답사간 동안 얼마나 심심+쓸쓸+심심했는지 모르죠?  
앞으로 우리만 남기고 가지 말아요-2박3일동안 얼마나 배고팠던지요  
-지리교육과 신선한 91학번들이
- 보아라! 우리들은 태양의 아들  
·일시:3월29일(금) 5시  
·장소:코끼리상 앞  
·신청서 안오면 알지!  
-재동대 천안복일 동문회
- 소중한 사람에게 전합니다.  
승희야! 무척이나 보고 싶구나. 너도 물론 우리가 보고 싶겠지. 그래, 우리 다시 한번 힘을 합쳐 보자꾸나. 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말 안해도 알지.  
-승희와 같은 32기 동지들

- 드디어 개봉박두.  
몇십년전 오는 28일 우리의 사랑 야간강과 총학생회장이 발가벗고 나온 날이예요. 모두모두 축하해 주세요. 또, 동아를 오를때면 조심하십시오. 산적(야간강과 총학생회장)이 언제 나타날지 모를 일입니다.  
-산적을 사랑하는 야총 일꾼 일동
- 동국대학교 노래대 혐의의 건준위 사과대, 문과대, 이과대, 경성대, 사범대, 야대, 동아리(아리랑)으로 구성되었음 동아리 노래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당찬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4월 말경 건준위 프리퍼포를 메어내고 정식 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시 의장으로 제1기 문과대 노래대 연합회 회장인 철학과 3학년 이태범 학생이 선출되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 천천히 모여라. 다친다. 총향이도 없고 이몽룡도 사라져 버린 지금 남민명에서 귀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처럼 만났지만 술과 담배는 금물이지라요. 문둥이에 헤로인에게!  
일시:1991. 3. 29. 금요일 오후5시  
장소:만해광장 단상 앞  
주최:남민 향우회 소속 Mr.조
- 영문과 영어연극반의 Workshop공인 'Everyman'의 성연을 기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세요. 조만간 거하게 한잔 사겠습니다.  
-MT에 갈 수 없는 애타는 89선배

### 열린글터

본사 어른매체부는 동아의 모든 주체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글, 만화, 사진등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실리는 원고에 대해 소정의 고료도 지급합니다. 각 단대 모니터 요원(편집부장)을 통하여나 신문사로 직접 가져오시면 됩니다.

### 명신개발과 재계약이 웬말 '안버리고 줌' 캠페인 있어야

환경미화원 아주머니들께서 파업(파괴관, 교수관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을 단행한지 일주일이 넘어서고 있는 현재 학교측(관과)에서는 일방적으로 명신개발과 재계약(90~91년)의 공개 셋째, 학교측에서는 차라리 재계약에 대한 발표만 아닌 공문서형식의 근거제출을 일이다. 그래서 사소한 총학생회에서는 원칙적인 공개입찰을 요구하며 파업으로 치달게 한 현재의 상황에서 청소관리에 대한 미흡에 대해 문제를 요구하고 환경미화원 아주머니들께서 신바람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임금과 상여금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학교측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 1만 학우들에게서도 그동안 지적받은 환경속에서 학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해결을 학교측에 촉구하며 우리 학우들은 동아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안버리고 줌 캠페인을 범동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동국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좋은밥 먹이는데 꿈인 주방장의 실직 동지애로 전용진씨 복직시켜야

이 척박한 땅에서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리와 믿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혁을 지향하고 참예상을 만들려고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의리와 믿음'은 '동지애'라는 말로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기 초부터 불어온 승리의 불바람을 마셨습니다. 학생식당 직영화/ 참으로 오랜 학교 당국과 업자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학생 식당이 직영화 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학우들의 투쟁과 총학, 학부위의 노력이 있었음은 분명하니, 생존권의 위협까지 당하시며 밤낮으로 학생 식당이 직영화되는 데 많은 노력을

이셨던 분, 바로 얼마 전까지 다양한 주방장 일을 하셨던 전용진님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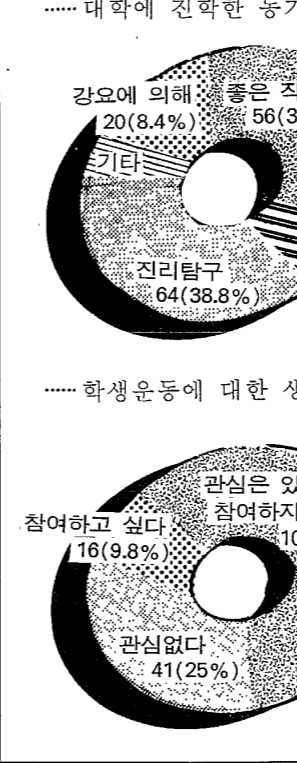
작년 겨울 다양한 전 직원이 업자에게 집단 사표를 내면서부터 학생식당직영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되고 그후 4개월가량 '전용진'씨는 식당직영화에 많은 도움을 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마땅한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만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직영화된 식당에서 학생들에게 자기가 지은 밥 한번 먹여 보는데 그분께의 꿈일런지도 모릅니다. 또 그분에게는 식당직영화 투쟁은 업자의 폭리 속에서 생존권 투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식당은 직영화가 되었습니까?

지난 16일 국민대회에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소리 높여 구호로 외치셨던 그분의 얼굴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생존권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면 서도 열심히 생활하시는 그분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와 진실을 위해 투쟁하는 이들에게 의리와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용진씨에게 해드려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요?

저의 작은 소망이기는 하지만 직영화된 식당에서 누구보다 애쓰셨던 전용진씨가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동지애라 말하고 싶습니다.

### 박혁 (사회대 정치외교학과)

### 설문조사 (통계조사 연구회)



동아리 '통계조사연구회'에서는 91학번 서울캠퍼스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과의 선택동기와 만족도, 대학생활에의 기대나 회담등의 문제를 제시하여 치열한 입시판권을 통과한 학생들의 의식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2회에 걸쳐 실을 예정이다. 정보화시대를 살고있는 요즘, 단편적인이나 신입생들의 의식향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중앙도서관 제역할에 역부족

"아니 회장이! 도서관 건다 더니 왜 그날 놀아왔어?" "갔는데 자리가 없어 그냥왔어. 사람들이 자리를 하나씩 맡아놓고 있으니까 자리가 없더라!" "그래도 자리가 남을텐데 이 사람들!" 이러한 대화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동아인이라면 대부분 한두번씩은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동아의 도서관은 1996년 5월 명진학교 설립과 함께 설치하여 많은 발전을 하며 1962년 1월 현재의 건물로 신축, 이전하여 지금의 도서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열람실은 모두 2천5백여석 규모이며 약 50만권의 장서를 소유하고 있어 수직상으로 본다면 도서관으로서서는 시설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동아의 식구들은 모두 1만명이며 그중에서 상당수(약 절반의 학생들)가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하면 2천5백여석의 자리로서는 많은

### 정인호 (문과대 사회과)

### 이동숙 (인문과학대 국어국문학과)

### 학내가 고속도로는 아닌데... '사람' 우선 풍조돼야

머질전에도 교내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서 사람이 다치는 큰 사고가 또 일어났다.

오래전부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내에서 자동차가 속도를 줄여 운행하는 것에 대한 재고가 끊임없이 되어왔다.

그러나 대낮에도 영업용택시를 비롯한 자가용들이 학생들이 오가는 교내를 활보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망을 채워주고 있다.

일단동아의 학우들이 동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도서관을 신축 또는 증축해야 하며 또한 장서를 더욱 많이 비치하여 학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대충 큰 사고가 없는 한 아무 대응도 없는 학교당국까지, 항상 학생들은 의면되는 우리학교의 복지사항은 언제나 개선될진 같지 않다.

교내거리는 학교버스타 교수·직원들의 출퇴근용이 아닌 인도용이고 가끔적 자가용이용은 제한되어야 하며, 최소한 교내에 속도제한 표지판이라도 빠른 시일내 생겨야 학생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동숙

### 동아! 광장

- 축하(?)합니다. 김영아씨!  
무일 축하(?)하는지 모르지만 하하하 좌절하지 말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서. 무슨 소리지...  
-경주에서 상현이가
- 안부진합니다  
정신없이 일에 쫓겨 뛰어들다가 본득 돌아보면 허전한 3월입니다.  
모두를 바쁘겠지만 고민에 빠진 동지를 위해 가슴한구서 비취는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빌며 조만간 모여 술이라도 한잔합시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몇몇팔팔이
- 차한잔, 말한마디가 그리우면...  
91학번 여러분의 입학에 뒤늦게 축하드리며 올바른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찾아가는 모임인 '꽃다지'에서 인사드립니다.  
허전하고 무료한데, 기쁘고 싶은 어께가 필요할 때 학생회관 3층 여학생회 옆에 있는 조그만 방을 찾아주세요. 친구가 돼드릴게요.  
-여성문제연구회 '꽃다지'일동
- 환영합니다  
상경대 경영(야간)91학번 신입생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보람찬 대학생활을 누리시기 바라며 열심히 생활하십시오. 여러분, 밤은 우리의 것입니다.  
-경영(야간)어느90학번이
- 초대합니다.  
민족문제 연구모임 '겨레사랑'이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여러분(91학번 새내기)을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운동장 스탠드 밑, 비록 작지만 아늑한 우리들의 동지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 친청내기를 기다립니다.  
일우/ 저희 교직원연구회 발매에서는 3월과 4월초에 걸쳐 91학번 상신한 영계(?)를 찾습니다. 약과 더불어 민중의 삶에 대해 관심있는 91학번의 방문을 바랍니다.  
-회장·오정권 드림

### 온방골

기획 연재

올바른 대학생활을 위한 제언

민족의 적 아닌, 또 하나의 조국

‘북부조국, 남부조국’ 작년 8월 범민족대회와 한창이던 서울에서 미주대표부 참가에 뜨거운 박수를 받았던 노소음, 홍정화 양은 북한과 남한을 그렇게 보았다.

남북한의 적대감보다는 조국이 하나임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다. 하나의 민족이 두개의 국가, 두개의 체제로 갈라져 살아온지 47년이 된 지금, ‘태리집단’ ‘북괴’ ‘머리’에 빨라지고 ‘털이’ 부속부속한 괴물’로만 알려져 왔던 북한이 ‘적’이 아닌 ‘통일해야 할 같은 민족’으로 부르고자 한 조그마한 시도로써 그와 같은 표현이 나왔으리라.

88년의 남북학생회담 추진을 통한 통일운동, 89년의 평북청각가부흥, 90년의 범민족대회와 남북고위급회담은 우리가 잘못 알아왔던 역사에 대한 출발점이었다.

대중적인 통일논의를 막으려 눈 가리고 아웅의 임시변통책을 써왔던 정권에 맞서 47년간 끈끈히 버티기만 하던 지배이데올로기의 장벽에 돌파구를 낸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47년간 분단된 민족의 역사를 하나의 물결기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서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또 하나의 통일주체인 북한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해 환상적인 기대나 이해도 금물이고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나 냉정적인 사고또한 배제되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바라보고 통일운동을 해나가야 할 시기인 것이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북한은 사회주의권에서도 특이한 체제의 나라이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나라들과는 달리 ‘주체사상’이라는 특이한 이념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이 개방과 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유리식대로 살아가자’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나라이다.

더군다나 자본주의체제에서 살고 있는 남한의 사람들이 사회주의체제인 ‘주체의 나라’ 북한을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통일해야 할 또 하나의 주체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하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것이다.

우선 북한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사회내부의 논리를 쫓아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남한의 사람들이 ‘사적 소유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듯, 북한사회는 ‘생산수단의 국가소유’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각각의 사회를 있게 하는 내적논리에 의해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성적인 이해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성적이고 감성적인 이해는 자칫 사실에 기초해 사물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자세를 흐트러뜨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북한내부의 논리로서

사실에 기초해 관찰하고 분석한 북한사회의 우리의 관점에서 다시 이해해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민족적 입장에서 풀어간다는 자세이며 그되기 위해서라도 자주적 입장의 견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의문들

①가짜 김일성론 북한에 대해 가지는 의문들중의 하나가 현재의 김일성론은 항일독립운동을 하던 김일성의 이름을 가로 첩 가짜라는 것이다. 그러나, 반공적인 입장에서 한국공산주의운동을 연구해온 김준업, 김창준, 이정식, 스칼라피노, 서대숙등도 이러한 가짜 김일성론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가짜 김일성론이 나오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일제시대때 일본 육사를 거쳐 항일독립군을 걸었던 박정희(일본명 오카모토)가 의

문과 화해전을 벌였다는 의혹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한반도를 각종 무기의 시험장으로 여겼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각종 협정과 조약을 이용해 남한의 군사주권을 양도받고 친미적인 애국정권을 세움으로써 전쟁에 참가해 실적을 차렸다.

북한의 사회경제에 대하여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체제는 생산수단과 토지의 국유화를 기반으로 한 체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평등과 착취없는 사회라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한다고 한다. 흔히 남한에서는 북한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비교되는 GNP에 있어서도 남한의 경우 유통과정에서의 부가가치를 계산하는데 반해,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의 경우 상업·유통부문의 국가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계산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단순히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계산된 GNP로써 양사회체제를 비교하는 것은 무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경제의 경우 수에 의해 경제의 발전 여부가 규정되는 개방경제인데 반해 북한의 경우 ‘자력갱생’이라는 구호에서 볼 수 있듯 자국에서의 생산을 가장 중요시 하는 특이한 체제라는 점에서 세계경제변동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다르다.

한편 북한에서의 경제적 평등의 경우 15~20명주택의 한달월세가 북한화폐로 2원(남한의 화폐가치로 2천8백원~3천원)만 지불하면 되고 컬러TV등의 개인적 소비를 위해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사건은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임수경양.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사건은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임수경양.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사건은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임수경양.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사건은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임수경양.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사건은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임수경양.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사건은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임수경양.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사건은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임수경양.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사건은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임수경양.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사건은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임수경양.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사건은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임수경양.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사건은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임수경양.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사건은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임수경양.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사건은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임수경양.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사건은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임수경양.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사건은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임수경양.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사건은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임수경양.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사건은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임수경양.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사건은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임수경양.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사건은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임수경양.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사건은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임수경양.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사건은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임수경양.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글 쓰는 차례

- 1. 삶의 나침반, 철학
2. 사회현실을 바로알자
3.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4. 또 하나의 조국, 북한에 대하여

북한화폐로 몇백원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즉, 주택등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비는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개인적인 소비나 사치품등은 높은 가격을 매겨 집단적, 공동체적 소비를 중요시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북한사회경제체제의 특징중의 하나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의식위상 고급소비를 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북한의 통일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평화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의해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며 통일연방국가를 세우는 연방제통일방안은 60년이후의 과도적 연방제통일안에서 80년 완성된 통일국가로서의 연방제통일안으로 변화해오고 있다. 그리고 연방제통일에 앞서 휴전협정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체결, 남북한간의 불가침선언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꾸준히 제의해 왔다.

맺음말에 대신하여

북한을 바라볼때 나타나는 갖가지 의문들, 혹은 왜곡되게 알려졌 있는 것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다. 사실 수십년을 다른 체제와 사상으로 살아온 사회에 대한 인식을 원고지 몇장의 설명으로 모두 설명되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교육, 반공교육에서 일그러진 통치의 얼굴을 주입받아 온 세대들에게 하나의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이상의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재미교포2세대들이 얘기했듯 ‘북괴’가 아닌 통일되어야 할 북부조국(가)에 우리가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통일해야 할 또 하나의 주체로서 잘된 점은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점은 비판할 수 있는 올바른 관점이 분단 반체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라 하겠다.

많은 자료와 책들을 통해 ‘또 하나의 조국’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사회부)

서평

이 만근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철학과 과학의 만남을 다루고 있다. 이 만남을 특징짓는 것은, 과학기술혁명으로 집약되는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갖는 양면적 성격—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올바로 파악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전망을 인간해방의 지평 속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라는데 있다. 알다시피 현대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이 직접적 생산력으로 필요로써 엄청난 생산력 발전을 가져오고 이것은 다시 인간의 삶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사회의 역사발전과정에 대한 새롭고 보다 높은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자본주의 사회이건, 사회주의 사회이건 과학기술혁명의 성과들을 사회발전의 물질적 기초인 생산력으로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여러 부정적 측면을 안고 있다. 즉 저자가 쓰고 있듯이, ‘과학·과학기술은 사람에게 무한한 행복을 가져다 줄 가능성도 있지만,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

나하면 이러한 환상은 과학기술이 갖는 사회에서의 진보적 성격을 부정하게 됨으로써 인류의 문명자체를 거부하는 데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과학의 문제를 우선 크게는 세계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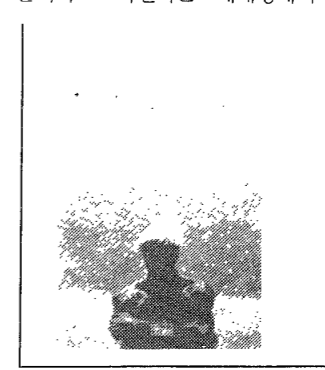
저자는 ‘과학·과학기술은 사람이 세계에 작용하여 세계를 개조·변화시키는 이론과 기술’로 보고 따라서 ‘과학·과학기술자는 당연히 세계가 무엇이며, 사람이 무엇인가, 즉 올바른 세계관과 사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과학 및 과학기술을 단순히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보는 과학주의(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격변하는 세계체제의

의 주제들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혁명의 문제는 크게 세가지 영역, 즉 자연과학 및 그 기술적 측면의 문제, 사회·경제적 측면의 문제, 그리고 철학적·이데올로기적 측면의 문제로 구분하여 볼 수 있겠다. 물론 이 세가지 상호연관된 측면으로서 통일적으로 파악해야만 할 것이다. 이 책 역시 이러한 문제들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면서 위하면서도 명쾌하게 쓰고 있다. 예컨대 저자는 과학의 의미 및 역할을 다음의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과학은 생산력을 발전시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여 새로운 사회관계를 확립하고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 하며 둘째, 과학은 물질

철학의 세계 과학의 세계 이만근(진본교수) 지음 (도서출판문신) 펴냄



변증법적 세계관 통한 과학해명 시도

계 할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과학·과학기술은 독립자본의 이윤추구의 수단이 됨으로써 민중이 수탈받고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환경이 파괴되어 사람의 생존마저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측면(인간성의 파괴, 공해, 전쟁, 사람의 소외 등)을 단순히 과학 및 과학기술 그 자체로부터 초래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왜

역사적 의의를 규명해 보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나하면 과학·과학기술이 현재 계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며 ‘과학·과학기술은 세계의 모든 분야·부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그 속에서 자기발전의 역사적 법칙을 구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과학의 정치적 의미’, ‘과학의 계급성’, ‘과학기술과 공해, 재해, 전쟁’, ‘과학기술진보와 제3세계’ 등

문화적 재부를 늘려주고, 생산수단과 노동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과 노동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한다고 본다. 그리고 또한 과학은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적 역할을 강화하는데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과학·과학기술이 단지 독립자본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공해문제, 환경문제, 핵문제 등이 발생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병들게 한다는데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해 사람의 문제와 세계의 운동·변화의 원리와 법칙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문제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저자는 변증법적 세계관과 주체적인 인간관을 결합하면서 과학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사회적 진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관계를 비롯한 제반 사회적 관계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혁명이라는 생산력의 발전에 조응하며 동시에 이것을 규정하는 생산관계의 변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과학적 세계관적 탐구는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과학기술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현대사회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책은 우리들에게 과학기술의 문제 및 그것이 함축하는 철학적 문제까지 통일적으로 밝혀주고자 했다는 점에서(이것은 철학의 문제를 새로운 지평에서 재인식하려는 의미도 포함한다) 일독을 권한다.

제9회 학생논문 현상모집
본사에서는 본지 창간 41주년 및 4·19 31주년 기념 '제9회 학생논문'작품을 모집합니다.
본사에서는 본지 창간 41주년 및 4·19 31주년 기념 '제9회 학생논문'작품을 모집합니다.
본사에서는 본지 창간 41주년 및 4·19 31주년 기념 '제9회 학생논문'작품을 모집합니다.

등록 최종 마감 안내
1991학년도 제1기분 학부 재학생의 최종 등록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 마감합니다.
1. 납부기간
1991년 3월 29일(금)~3월 30일(토)까지
2. 납부처
경주캠퍼스
3. 기타
①등록금 고지서는 재발성이 불가능하므로 분실, 오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지정납부처에 납부하지 않을시 등록무효로 학적이 상실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③문의사항은 서울 및 경주캠퍼스 경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1991년 3월
총무처장

수강신청 최종확인
'91학년도 제 1학기 수강신청 최종확인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기 간: '91. 3. 27(수) 1일간
2. 장 소: 각 대학 교학과 및 학과
3.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의 임의변경(취소, 추가)은 불허함.
나. 전산처리 오류, 학생들의 기재착오, 분반, 폐강으로 인한 강좌변경등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가능함.
다. 정정사항은 학과 및 교학과에 신고할 것.
교무처장

현대시 창작교실
당신도 시를 쓸 수 있다
이행기 교수 지음
〈문과대 국어국문학과〉
이 책은 시인이자 평론가인 이행기 교수의 명석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빚어진 근래의 폐저(快著)로서 '어떻게 하면 시를 잘 쓸 수 있을까'하고 고민하는 시 지망자와 안타까운 소원을 풀어주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이 책에는 시창작의 비밀이 유감없이 개진되어 있어 시 지망자의 탐답한 속마음과 안타까운 소원을 풀어주는 반담(伴談) 구실을 확실히 해줄 것이다.
—金光林(시인)

외국어교육의 선구자
PAGODA FOREIGN LANGUAGE SCHOOL
많은 대학인과 직장인들이 파고다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이유는
외국어 교육과 우리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ASIC부터 고급에 이르는 미국인 영어회화·S·L·E·코스(각반 12명 정원/강사진원 1명·복합출신 미국인/12달 완성)
미국 생활영어·Side by Side 기초영어회화·LADO회화
ENGLISH영자·TIME·영어순례·독해·TOEFL·종합영어
교육강·TOEFL종합반·GRE·GMAT·문법·영어성취기초
VOCABULARY·AFKN형회·TOEFL·L/C·부역영어
PEAKING과 LISTENING을 동시에 강훈련하는 11분 수업
표준발음·NHK 일본어정취·러시아어·러시아어회화
프랑스어회화·독일어·중국어·중국어회화·스페인어회화
TUTORIAL SYSTEM으로 특수훈련된 최선어학소수
외국식 학습분위기·최신시설·전원전망·수료증취득
과학적이고 정밀분석된 Placement Test를 거쳐 LEVEL배정
종료·2가 파고다종합 권년별 학비 274·4000
다음학기 예약접수중
강남·압구정역 동호대교로 학비 515·4020
파고다 외국어 학원

개강 4월 1일
영어·일어
러시아어
TOEFL600
GRE2000
GMAT700
종강원·종로 2가·734-2442
시사영어학원





# 생생한 노동자 정서 담아낸 민중시인



◁검거될 공을 두려워한 노동자 시인 박노해. 혁명가라고 불리지만 그는 본명 노동자들의 새벽을 연 시인 입에 불릴었다.

## 박노해는 노동자 해방과

## 노동 문학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자 하는 지식인들은 거의 박노해와 '노동의 새벽'과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집을 읽어 봤으리라 여겨진다. 이 작품들은 막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는 물론 노동현장에서 필독서가 될 정도로 새로운 인식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이들 작품이 거대한 물리력과 맞서 싸운 역사적 체험과 그 투쟁기를 담았기 때문이다.

6~70년대 산업화 과정은 노동자들에게는 이윤을 최대한으로 착취 당하게 하고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채 희생당하는 억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엄청난 희생만 강요하는 노동현장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불구가 되고 장시간 강노동 속에 피와 살을 말리며 일 해야만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밤을 수복 틈틈이 뿌리 박아 솟아나는 불모리처럼 '잠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노동자들의 갈망은 점점 커져 전제연설의 분신을 필두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70년대 중반 유동우의 '어느 돌맹이의 외침' 이후 노동현장에서 쏟아져 나왔던 시, 소설, 수필, 르포르타주 등에 이어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 되어 나타났다.

특히 박노해의 경우는 노동자의 억압적 현실을 폭로하며 노동자들이 스스로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고 격파하도록 추동

한. 일찍이 고 채광석 선생은 '그의 시들은 노동현실의 구체적 체험에 깊이 뿌리 박고 그 현실을 살아가는 근로자들의 절망과 슬픔, 원한과 분노의 정서를 생생하게 담아낸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인간다운 삶을 향한 주체적으로 일어섬 속으로 녹아들어가 일깨우는 민중해방의 정서를 탁월하게 보여준다.'('노동의 새벽'중에서)

## 노동자 스스로 사회모순과 싸울 용기 쥐

## 구체적 체험으로 새로운 사회 갈망한 시세계 펼쳐

해설 '노동 현장의 눈동자'라고 하면서 그 당시 지식인 문학의 인위성과 패배주의적 냄새에 일침을 가한다. 하여 문학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문학이 진정 무기의 힘으로서 노동자들을 선두로 전 민중이 역사의 전면에 작위자들과 투쟁하게 하는 임무를 정확하게 하였다. 최근에 있는 문학계에서는 한 자는 70년대의 민족문학의 성과를 이어 80년대 문학

적 투쟁에 앞장서는 그런 자리 매김을 하는 것에서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전 한 문학 강연에서 연사가 "시인과 수감, 시인과 감옥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까?"라고 한적이 있었다. 얼마전 장기간 수배 생활에서 구속된 박노해 시인의 수감 찬 모습에 전국적으로 방영된 것을 보고 한 말이다. 척박한 노동 현실과 끊임없는 지배와 억압에 살아야 하는 이 땅에서 시인은 박노해 그가 말했듯이 진정한 혁명가여야 하고 억압받는 자의 눈을 가져야 한다하여 진실로 억압을 깨부수고 개조해내는데 문학의 힘으로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한다.

# 소련 국립 조선극장장의 편지

김 홍 우

(예술대학교수 연극영화학과)



자네여, 올 난 한국 예술평론가 협의회가 주관하는 한소 예술인간담회에 한국측 연극인의 입장에서 참여하였다.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타시켄트 등 세 도시를 거쳐 우리들의 마지막 행선지인 알마타에 도착하니 새롭고도 달리 많은 예술가들이 공황까지 나와 환영해 주었다. 그곳에서의 간담회는 도작방일 저녁에 행해졌는데 우리교포 예술가가 200여명이 참여하여 꽤 진지하고 성대하게 행해졌다. 특히 국립조선극장장 김 블라지미르씨의 사연을 듣는 우리는 뼈가 저려오는 아픔을 느꼈다. 계소 국립조선극장이 내후년이면 60주년을 맞게 되는데 이것을 이어나갈 젊은이들이 없다는 것이다. 이윤인숙 계소교포 3, 4세들의 대부분이 한국말을 못한다는 것이다.

난 그분을 알게 되면서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다. 한국에서 내가 처음 그곳을 방문한 연극인이자 그분도 대단히 반가와 했다. 다음날 저녁 우리들은 김 블라지미르씨에게 우리말을 쓰도록 해줄 의무를 느껴야 한다는 사연을 다시 들려줬다. 우리말을 이곳에서 가르쳐 주던가 젊은 친구들을 데려다 연극과 우리말 교육을 시켜 보려달라

이것은 국립조선극장의 경우이지 그곳을 방문하면 안타까움은 이곳저곳에서 나타난다. 무엇이든 많은 하고 싶는데 말을 못하는 아쉬움.

우리는 동포애를 발휘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우리말을 쓰도록 해줄 의무를 느껴야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연은 각방면에 얼마나 많겠는가?

## 손가락 꺾기

의 일종인 카이로프랙처를 할 경우에 관절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아 환자를 놀라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손가락에서 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들리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도 불안한감을 감추지 못하기도 한다. 관절이 받는 장력(Tension)이 점차 증가되어 어느 한계(약 8-9kg)를 넘어서게 되면 관절면이 갑자기 분리(약 4.5mm)되면서 동시에 관절강안으로 개스가 스며들어 기포(=거품)가 발생한다. 따라서 관절을 일으키는 기포가 생성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기포는 그후 약 20분간에 걸쳐서 다시 관절액 외부로 서서히 빠져나간다. 한편 소리가 나면 환자는 반박할 수 없는 것이 이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치료과정에서 나는 소리와 각 개인 발생되는 정도는 다르다. 우리 몸이 미치지 못하는 영항은 다르다는 점이 이 고착(fixation)된 부분을 찾아서 관절면에 평행하게 정 확히 최소한의 장력을 주게 되지만, 이 힘의 올바른 방향과 크기를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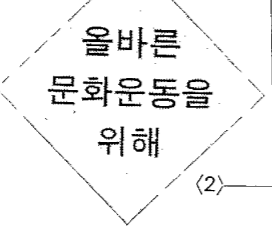
## 이 명 증

(한외과대학 전임강사·동국한방병원 물리요법과 과장)

무의식적으로 손가락마디를 과신전(過伸屈) 또는 과굴곡(過屈曲)시켜 '뚝뚝'소리를 내는 버릇을 가진 경우를 종종 본다. 또한 손가락관절이 아니라 목과 허리의 관절을 같은 방식으로 운동시켜 효과를 과시하기도 한다. 주위사람의 기분은 아랑곳없이 매우 자랑스러운 듯이 손, 발, 목, 허리, 어깨의 손으로 우드득 우드득하며 준비운동을 하는 선수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습관화 되다시피하여 만약 이를 되풀이 하지 않으면 관절운동이 제한된 노동을 받으며 어느 때는 점점 더 큰 힘을 주게되어 관절에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의학적 견지에서 볼때 이는 좋지 않은 습관이다. 손가락관절의 경우라면 3-4주 정도만 침착하면(그동안은 몹시 거부하겠지만) 대부분 자연히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으므로 다른 악습관 고치기와 마찬가지로 인내력이 관건이 되었다. 지금은 장난으로 관절을 내는 것이지만 이것이 오래 지속된다면 후에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빨리 늙는다는 얘기이다).

한편 필자가 수기(手技)요법



# 문예패 연대한 자주적 문예운동 필요

## 글 씀는 차례

1. 문화의 문제점 고찰
2. 문학
3. 노래
4. 풍물
5. 미술
6. 민속극
7. 총평

모임의 경우도 있고 문예운동을 표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문예운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문예패는 중앙문예동아리인 동국문화회 외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문예운동을 한다는 말을 문학예술의 대중적 보급과 그중추의 확산이라는 면에서, 또 하나 문예를 통해 자주적 학생회의 감각기관의 역할

한데 한국문학의 산실이라고 일컬어졌던 문학에는 현재 각과를 중심으로 한 독서토론회부터 파과과, 파장작화회, 불대문학회, 중앙문예동아리인 동국문화회 등 약 20여 개의 크고 작은 문예패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독서토론회에서 창작 합평회, 시화전, 작품집 발간, 문학강연회 개최, 집회시낭송 등 다양한 문예실천을 벌여 나감으로써 소속 파과과 동학을 살찌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지향은 모두가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중적인 문예실천을 벌여나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3. 자주적 문예운동이란 무엇인가? '녹두꽃 2'에서 정제화씨는 '자주적문예운동관을 정립하자'에서 '무엇보다 핵심적으로 제기해보고 싶었던 것은 문예운동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였다. 문예운동은 누군가가 작품을 보급하고 보급받는 운동이 아니라 대중이 자주성 실현의 한 과정으로서 문학예술의 무기

를 행성해나가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또한 여타의 문예패들이 역량이 그 주가 될 것이 불렀다. 이들이 조직화 되는 시기와 경로는 올 여름방학중 동학 차원으로 열리게 될 '창작교실'이 되지않을까 생각된다. 문예패들의 연대한 대중적 창작교실속에서 동학의 문예운동이 나아가길 이 밝혀지기 시작할 것이다. 지면적약상 엄청난 글이 되지 않으나 우려하며, 식민지 변혁운동이 압도적 다수의 조직화된 역량으로 성공하듯이, 문예운동의 승리 또한 압도적 다수가 주인되어, 조직적으로 벌어나가는 것에 있다는 말로써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 준 희 (문과대 국문과)

## 전면적 문예운동... '동국문화회' 외엔 부족

## 방학중 '창작교실' 통해 문예패 결합 기대

할 수 행한다는 의미로 두고자 한다. 현재 동학에서는 문예를 통한 소속 대중의 귀와 감각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문학 예술의 대중적 보급과 확산에 주력하는 문예패는 몇몇 안 되고, 그나마 중심이 없거나, 독립분산적이며, 통일적이고 대

들이 문학예술의 주인이 되어 동학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동학의 문예패는 자주적 학생회의 발전과 그 운명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소속계급계층을 떠나, 소속대중들의 운명을 떠나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문예운동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4. 동학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자주적 문예운동은 동학의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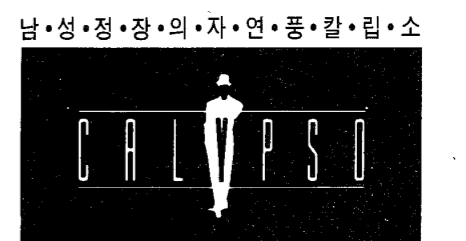
가운데서 드러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순수 문예소

#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규율이 아니라

# 개성이다 - 칼립소

어떤 이들을 기억하는가. 칼릴레오가 '지구'는 돌고 있다'고 처음 말했다. 마르코 폴로는 서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동양의 꿈과 신비를 기록했다.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처음으로 드림을 선택한 젊은이들. 웨일즈공은 처음으로 윈저 노트로 백마를 탔다.

이 시대에서 시대를 이끌어 가는 것은 규율이나 개성이다. 남성 정경의 자연공감립소. 트래디셔널 정경의 격에 시대의 풍미를 더한 남성 정경의 새로운 향취. '처음'을 사랑하며, 스스로의 삶을 창조해 가는 당시에 칼립소.



▶칼립소 전국매장  
●신세계(합동포) 678-6382 ●현대백화점(무역사) 566-9568 ●삼동백화점 534-8956 ●부산백화점 553-5511 ●대구백화점 422-4470 ●대구백화점(포항) 82-6990 ●대전 동남백화점 254-5724 ●부산 태화쇼핑 805-1234 ●진주점 42-9800 ●영주점 34-3456 ●제천점 42-3425 ●전주점 85-8455 ●순천점 52-3088 ●여수점 64-2300 ●이리점 52-2970 ●압구정 직영점 540-0503 ●힐튼호텔 직영점 756-7409 ●대우센터점 778-8657 ●광주점 228-0109 ●부산직영점 245-4667

(주)하이파이브 칼립소 사업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315 TEL 290-4606

# 학교당국 등록금 18%인상 교수

## 등록금 협상 계속결렬로 점거농성등 사태악화 27~28일 총학출범등 대중력총화가 최대관건

등록금협상이 결국에는 '과국'에 이르렀다.

지난 25일 오후 1시 기획조정실에서 있었던 등록금 협상 실무협상이 결렬되고 곧이어 총장, 처실장과 총학운영위원간의 단체협상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채 이날 학생1백여명이 기획조정실 점거농성에 들어갔으며 해결의 실마리가 쉽게 풀리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등록금협상이 한지 않은 내다 볼 수 없는 현재, 학교당국은 "오는 29~30일 양일간 최종등록금을 받는다"며 학생들에게 서둘러 등록금을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총학생회는 오늘(27일) '등록금부정 환전승리를 위한 1만결의대회'를 열어 학생들의 지지를 모아 내일(28일) 출범식으로 이어지는 대중력을 끌어모을 계획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그러나 교육부에 학사보고 기한이 4월8일까지이고, 23일까지의 서울-경주 등록금이 77%점을 붙여 이번주내에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그 책임은 학교당국-학생대표가 공동으로 짊어지게 된다.

등록금협상보고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날 집회의 등록금협상 보고에서는 "지난6차협상에서 8차협상까지 재단과 학교당국의 실무자가 불참해 협상과정에서 얻은것이 없다"며 학교당국의 부정적인 협상태도의 각성을 촉구했다.

가정교육학과와 모범부서사태발표에서 학회장 김현정(가교·3)은 지난3월14일 비상총회를 열고 파동확위를 꾸려 등록금고지서 반권부쟁을 전개 2·3·4학년 1백20명중 50여부를 파로 회수했고 계속 부쟁할것을 결의해 열면 비수를 받았다.

이이 요구석(한의학2)총학생회장은 등록금협상에서 경주캠퍼스 요구사항으로 △도서관도 사확 △노원강당전실 △경주부총장의 권한확대 △예결산공개 △실용실습비, 학생회비공개, △신인생 등록금 준공고지

철폐 △재단전입금확충 △경주병원 연내개원 △자연과학관 연내착공 △전산인의 학교로의 반환 △학교시설부자재 재단에서의 전액부지등 학내복지와 동국발전을 위한 부분을 포함 40여항목을 밝혔다.

이날 학생들은 학사부전공식을 마친후 각관대순으로 교내시위를 벌이고 행정사무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90학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들의 취업통계에 따르면 순수취업률이 2%감소함으로써 매년 저조되고 있는 취업상당일 개설등 취업대책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5일 학생처가 발표한 '91년 2월말 현재의 취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학원입학등을 포함한 전체취업률은 68.3% (남자76.8%, 여자46.2%)로 85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유학, 군입대, 대학원, 고시준비 제외 순수취업률은 54.4% (남자59.2%, 여자41.8%)로 89년에 비해 2%감소했다.

단대별 취업상황을 보면 일반기업체, 금융기관취업에 유리한 법대(88.5%), 경상대(85.6%)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이·공계 취업 신규채용확대로 공과대(81.8%)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금융기관, 일반기업체 취업이 전체취업률의 5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경상대, 사회과학대등 일부 관련대학을 제외하고 전공에 맞는 진로선택은 미비한 상태임을 보였다.

특히 교원직체현상, 국·공립사대 우선임용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범대의 경우 전체 교직원출자 1백21명중 50%에 못미치는 54명만이 교직원출, 국·공립우선임용에 의한 사립대학 사범대 교원직체등의 사회적 모순과 함께 사범대생의 더많은 교직원출 등 대의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본교의 진학이념구현에 이 매년 저조한 취업률을 보이는 불교대, 사범대등에 대한 취업포로마련이 시급하다.

- 등록금협상을 위한 8개항 학생요구안
1. 신입생·재학생 동일 인상하고, 학교기준 적용하라.
  2. 장학내역 공개하고 장학금을 확대하라.
  3. 부당인상 철폐하고 5%로 인하하라.
  4. 실용실습비 내역 전면 공개하라.
  5. 교수임용과정 민주화하라.
  6. 학생참여 보장되는 '예·결산 심의위원회' 구성하라.
  7. 위원회 구조를 즉각 정상화하라.
  8. (3차 연석회의, 교과과정위원회, 등록금발전위원회) 신촌 봉원사 당 매각하고, 전액 동국대에 투자하라.

## 경주부총장 등 보직교수 임명 학처장-부속기관장등 전면개편

학교당국은 지난21일자로 경주캠퍼스 부총장에 신원재(영문학)교수를 비롯한 학처장및 부속기관장등에 대한 보직인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개편된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주캠퍼스 부총장=신원재(영문학) △지역개발대학원장=김시배(경제학) △인문과학대학장=서영석(국문학) △자연과학대학장=최상범(조경학) △법정대학장=김재문(법학) △상경대학장=김병기(무역학) △한국의대학장=문준진(한의학) △의과대학장=박승식(의학) △교무처장=장충식(공공미술학) △학생처장=김영희(무역학) △사무처장=박수근 △도서관장=김진학(국문학) △

계산소장서리=허성정(정보관리학) △기초과학센터소장=이정일(생물학) △대대신사사 부주관=김선정(법학) △교육담당승교 주관=김진택(한의학)

전체취업률 해마다 감소, 취업 취약 단대지원 시급

의해 설립된 불교대 역시 전공을 살리지 못한채 순수취업률이 35%에도 못미치는 취약한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여학생1백90명중 59명만이 취업, 31.1%의 취업률을 보인 사범대를 비롯한 여학생취업률이 계속 감소하는 현상은 고학력실업자가 계속 누적되는 가운데 일반기업체 신규채용에 여학생을 뽑지않으려는 사회적 풍토와 여학생취업에 대한 학교의 취업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데 문제가 크다.

(이병민 기자)

안되고, 진짜(?) 공부하지는 않는 것"이라며 반발.

현실인수 제자리걸음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모습에 따라 행정방향을 바꾸고 있지않나 싶어 우려되

88년 학원 자취를 위한 8개항과 함께 협회의 판공영향력의 외국인 교수출연이

3년이 지난 올해에도 총원이 퍼져 않고 오히려 영문과 외국의 교수의 대리장을 대안으로 제시, 파행적 행정을 의심하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제 한 학우는 "뱀질식의 현실인수가 결국 대학을 제자리 걸음 시키고 있다"며

서울·경주 부과장급 인사이동

총무처는 서울-경주 과장급 이상직원 21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지난 19일자로 발표했다.

△서울캠퍼스 △총판부장=강창순 △공보부장=김종욱 △역경원업무부장=백우석 △예산조정과장=류종은 △학적과장=오복용 △학생과장=차진우 △장학과장=박상호 △총무과장=신일식 △

공대학생회장 대항에 이은근 군 인준

공과대 학생회는 8개과 대의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17명의 찬성으로 김경수(전자공2)군을 지난 21일, 신임대의원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이번이 공과대대의원의 장으로 선출된 김군은 현재 총무공대학생회장인 현학원 관으로 구속되어 신임공대학생회장을 간접선거로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선거전까지 이은근(신공3)군을 공과대학생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인준했다.

인철-농생과 이사장실 점거 농성 무능교수 퇴진·신규교수 채용 철회 요구

신규교수채용을 둘러싼 농생과학생회의 적적적 결의를 주장하는 인철과학생회가 지난20일 이사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감으로써 개강후 줄곧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못한채 미궁에 빠져들고있다.

인철과학생회는 김모교수의 무능성, 채용과정에서의 부정비리등을 이유로 수업거부에 이어 김모교수가 완전퇴진할 때까지 어떠한 실행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농성 8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점거농성은 인철과 김모교수퇴진투쟁에서 지난11일 학과교수의 김모교수 담담장외강사교체청원서 거부등 난항을 거듭하고 학교·재단으로부터

##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복리 산1번지 자동차 한국의 꿈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오늘의 정식으로 내일에 도전한다.

**한** 국 자동차기술의 요람지-마복리연구소

광주산맥(廣州山脈)이 남으로 뻗어내려 아기자기한 봉우리를 이룬 중부내륙지방,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복리 산1번지-현대마복리연구소 / 현대공업기술의 척도이자 자동차기술의 꽃이라 일컫는 '엔진'을 국내최초로 독자개발에 성공한 자동차기술의 요람지입니다.

**침** 단 자동차기술에 도전한다.

1984년 11월, 1만여명의 대지위에 연구동(棟), 시험동, 공작동 등 각종 연구시설과 실험 장비를 갖추고 출범한 마복리연구소 - 이곳은 현재 석·박사 130여명 등 총 500여명의 전문 연구진이 한국자동차기술의 미래에 사활을 걸고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술의 핵심 부분인 엔진과 트랜스미션 등의 독자적인 설계에서부터 고성능·저공해 엔진의 실현을 위한 각종 시험개발, 기초 연구분야의 연소해석과 시뮬레이션 및 유체 유동해석, 새로운 대체연료의 적용시험, 전자제어 시스템 연구에 이르기까지 - 산학협동을 통해 한국자동차기술의 광명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 금도 우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기술의 완전 자립이라는 생존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냉정한 논리를 깊이 체감하면서 선진기술이 있는 곳이라면 지구촌 어디라도 달려가 배우고 익히며 밤낮도록 연구실의 불을 밝히는 마복리 사람들 - 선진국의 핵심기술 보호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 기술, 우리의 손으로 21세기의 찬란한 자동차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그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며, 미래를 꿈꾸며 현대자동차가 밝은 내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自動車**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복리 산1번지 자동차 한국의 꿈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오늘의 정식으로 내일에 도전한다.

**한** 국 자동차기술의 요람지-마복리연구소

광주산맥(廣州山脈)이 남으로 뻗어내려 아기자기한 봉우리를 이룬 중부내륙지방,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복리 산1번지-현대마복리연구소 / 현대공업기술의 척도이자 자동차기술의 꽃이라 일컫는 '엔진'을 국내최초로 독자개발에 성공한 자동차기술의 요람지입니다.

**침** 단 자동차기술에 도전한다.

1984년 11월, 1만여명의 대지위에 연구동(棟), 시험동, 공작동 등 각종 연구시설과 실험 장비를 갖추고 출범한 마복리연구소 - 이곳은 현재 석·박사 130여명 등 총 500여명의 전문 연구진이 한국자동차기술의 미래에 사활을 걸고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술의 핵심 부분인 엔진과 트랜스미션 등의 독자적인 설계에서부터 고성능·저공해 엔진의 실현을 위한 각종 시험개발, 기초 연구분야의 연소해석과 시뮬레이션 및 유체 유동해석, 새로운 대체연료의 적용시험, 전자제어 시스템 연구에 이르기까지 - 산학협동을 통해 한국자동차기술의 광명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 금도 우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기술의 완전 자립이라는 생존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냉정한 논리를 깊이 체감하면서 선진기술이 있는 곳이라면 지구촌 어디라도 달려가 배우고 익히며 밤낮도록 연구실의 불을 밝히는 마복리 사람들 - 선진국의 핵심기술 보호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 기술, 우리의 손으로 21세기의 찬란한 자동차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그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며, 미래를 꿈꾸며 현대자동차가 밝은 내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自動車**

# '참된 삶' 반영할때 올바른 예술

## 예술대·학술세미나 한국 근·현대 미술사

“진정한 예술이란 삶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으며 삶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낼때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동국대(L101)에서 열린 예술대 미술학과 주최 4차 학술세미나의 강사였던 이태호 전남대 교수(미술평론가)의 말이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란 제목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강연과 함께 미술 작품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주었다. 근대시대로 대표되는 일제하의 미술작품들과 서구모더니즘이 수용

도 더러 보이지만 일제문화침탈 속에서 그 빛을 발하지 못했다.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시대 그리고 6·70년대는 산업화와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탈로 다소 무분별한 서구 모더니즘을 수용하기도 하면서 반면 우리것을 찾자는 노력이 일어나기도 한다.

박수근, 이상범, 김한기 등과 같은 작가들은 민족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며 이중섭의 ‘소’는 서양화로 우리것을 표현하려했던 대표작으로 들 수 있다.

80년대 들어오면서 80년 광주항쟁 당시 금남로에서 피흘린 민중들의 모습을 화폭에 옮기는 ‘강령관’과 같은 이들의 작품이 등장하고 5공·6공화국을 거치면서 미술계도 ‘현실의 자각’을 하게 된다.

80년대의 민족미술운동의 한 실 천적 성과이면서 집약체라 할 수 있는 정계그림의 등장은 84년 광주문화회관에서 사용된 ‘민중의 싸움’이 최초로 87년 6월항쟁, 이현열 열

생들이 참가했고 대부분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며 많은 학생들이 ‘참된 예술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신입생도 더러 참가한 이번 미술학과 학술세미나는 수업방식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을 특강식으로 보충하려 했는데 단순히 ‘수업 내용 보충’차원을 넘어서 올바른 예술에 대해 문제제기를 던짐으로써 현재 예술계의 ‘윤동·비윤동권’의 예술이란 시각을 ‘올바르나 그렇지 못한 예술이냐’의 시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슬라이드의 마지막 영상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려는 연꽃방울’로서 끝을 맺는다. 이는 현대적 민족 미술운동이 어려운 환경과 제약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꽃피우려한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또한 “오늘 세미나의 성과를 토대로 이후 학생회에서는 좀더 발전적이고, 전방과

## 슬라이드 작품상영, 근·현대사 쉽게 이해 예상보다 많은 학생 참여, 토론등 열띤 분위기

되었던 6·70년대 작품들,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거치고 현재까지 현재 미술운동으로 발전한 정계그림등에 이르기까지 1백여점의 작품이 슬라이드로 상영되었다. 또한 강연이후에는 흔히 말하는 ‘순수·참’ 예술에 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는 등 전반적으로 열띤 분위기가 속 에 진행되었다.

근대시대의 미술은 주로 일제 식민지하에서 친일성향이 강한 작품들이 나타난다.

1920~30년대의 작품들은 보편 일제의 침탈이 강화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작놀이’를 즐기는 기생의 모습이라든지 조선의 여인이 일본전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등의 친일적 작품들이 회화에 판을 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민족의 올바른 모습을 담아내려는 오지호, 김중현 등과 같은 작가들의 향토정성있는 민족주의 성향의 작품들

사 정태석, 7·8월 노동자대투쟁에 이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현재 까지 이른다.

대략의 근·현대 미술역사를 슬라이드로 보여준 이번 세미나는 미술학과 학생회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학기에 한번씩 가졌던 예전의 학술세미나와는 달리 3백여명의 학

대안을 내올 수 있는 행사들을 계속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를 좀더 많이 홍보하지 못했듯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라고 말하는 예술대부학생회장 양윤정(미술학과4)의 말도 현재 동아 의 예술도 올바른 예술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최윤옥 기자)

## 91 자, 우리 손을 잡자

민주세력 총단결을 위한 노래 한마당

장소: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일시: 3월 30일(토), 31일(일) 오후 5시

·출연: 정태석, 김영남,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동자노래단, 노래마을, 민요연구회, 민족음악 연구회, 새벽, 예술원

·주최: 한국 민족 예술인 총연합회

·주관: 민족음악 협의회

·후원: 국민연합

·문의: 735-2407, 723-2972

## 대우가 있습니다

▲영 어의 Rival (경쟁자)는 그리스어의 Rival (하천)가 어원으로 물을 둘러싼 수리권(水利權) 싸움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독일의 한 학자는 우리나라를 ‘수력사회(水力社會)’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강수량이 많고 옛부터 물을 필요로 하는 벼농사가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이 물을 통제할 필요에서 왕정통치형태도 발달되었고 많은 저수지가 축조되기도 했다. 농경민족인 우리민족에게 가뭄때의 용수확보는 생명을 건 일종의 투쟁이었으며 아낙네들의 ‘우물물 싸움’은 아주 보편화된 모습이기도 했다. 그러나, 예전의 문화를는 상류지역에서 물을 이용하면서 중·하류지역의 전담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여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물을 통해 한민족이

라는 동질성을 느끼기도 했다. ▲몇주일전 대구를 비롯한 영남 지역 주민들은 오염된 수도물로 ‘물 노이로제’에 걸리고 말았다. 내과·소아과에는 배앓이 환자가 늘고 두부공장은 두부를 폐기처분하고 식당은 영업을 중단해버렸다. 우리가 손쉽게 찾아 마실 수 있는 코카콜라 판매원의 자매

## 치수(治水)

회사인 두산전자가 낙동강 상수원 저수에 페닐성분의 오염제거물을 버린것이 발각되면서 상수도 오염의 주범은 밝혀졌지만 그것과 함께 낙후된 정수시설및 상수도 공급계획의 허점이 밝혀졌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식수공급방법을 강구하라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수도물을 믿지않고

하급공무원의 경질이 아닌 환경부장관등 고위급관부의 사퇴및 대통령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조선시대 역대 왕들은 등극을 할때와 매년 초 원정에 대한 책을 받조했으며 5월 문에 대한 비가 오지 않으면 왕이 목욕 재계후 직접 기우제를 지내면서 왕의 부덕을 반성하고 괴수들의 석방을 관례로 하였다. 그런후에도 하늘로부터 물을 얻지못하면 왕으로서의 권위를 포기하기도 했다. ▲인간사회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 물을 얻지못해 권위를 포기한 설화속의 왕과 대통령을 동일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물에 민중헌-투회 마시는 물이기에-우리민족이기에 대통령의 권위를 생각의심해 본다. 대통령은 생수와 약수를 마실지 모르겠지만, 민중에게는 정수수 도물밖에 없기 때문이다. (景)

# 장기수의 삶, 민족의 아픔 그려

## ‘아버지의 해방일기’

“김전생은 고향 땅에서의 하루 댓가가 감옥에서는 10년이구만요. 선생, 우리는 젊은 청년도 이곳에서 다 보였고 건강도 다 빼앗겨 버렸구로.”

“그래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껏 간직해왔고 앞으로도 간직할 민족에 대한 사랑 하나뿐이지요.”

이해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다룬 극단 아리랑의 ‘아버지의 해방일기’중에서 주인공 김만석과 옥중 동료 윤노인의 대화이다.

‘아버지의 해방일기’는 역사의 맥을 넘나들었던 남파공작원 출신의 아버지와 현시대의 아픔을 가족사적으로 체험한 딸을 씨줄과 날줄로 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종구조로 설정하고, 딸이 이 사회를 더욱 커다란 감옥으로 느끼며 비전향 장기수 포무릎 더 큰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현재 옥중의 장기복역 양심수는 총124명(89년 이후 방북인사는 제외)으로 그중 51명의 사람들은 범무당국이 강요하는 소위 ‘전향’을 거부하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이다. ‘전향’을 하지 않으면 죽을때까지 투쟁을 펴는 시대를 지냈지만 비전향 장기수에게는 엄청난 불이익한 조치가 가해지게 된다. 가족 이외의 일체의 편지 면회의 금지, 일체의 출역금지 등 방방생활, 감형 가할방 불가능등...

이런 장기수의 삶과 가족사적 비

극, 민족적 아픔을 그린것이 ‘아버지의 해방일기’이다.

이 작품의 막을 여는 팽파리, 정, 장교, 북의 흥겨운 사물놀이는 마

따라 30년만에 잊혀져 있던 아버지의 해방일기이다.

이 작품의 막을 여는 팽파리, 정, 장교, 북의 흥겨운 사물놀이는 마

아버지의 부탁과 함께, 김취진



◇해방을 맞아 기뻐하는 남한민중들의 모습(일기속의 회상장면중)

## 비인간적 전향강요 극복과정 묘사 ‘일기’ 통해 아버지의 과거 이해

치 통일된, 해방된 조국을 맞는 것처럼 어깨를 들먹이게 한다.

이어, 비전향 장기수 김만석이 토벌대와의 전투에서 죽어간 지리산의 옛 탈출산 동료를 회상하며 제를 지내는 모습으로 연극은 시작된다.

간첩의 자식이라는 꼬박꼬박 유년 시절 아픈 경험을 안고 살아온 김만석의 딸 순옥은 어머니의 유언을

아버지의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 순옥은 형기만으로 출소한 김만석의 옛 동료 송재철을 만나 오래된 일기장을 건네받는다.

일기를 통해 해방직후 가난한 농사꾼 김만석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인민위원회활동과 탈출산생활을 알게 된다.

김만석은 지도부의 사명을 받고 월북, 6·25후 남파공작원으로 남한

에 내려오게 되지만 받을 디던지 사용만에 체포된다.

70년대 엄청난 전향 테러공작이 실시되지만 그는 뜻조하게 이어나간다.

순옥은 아버지의 과거, 어머니가 분단된 이 땅의 아픈 현실을 자각,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가협에 가입하여 아버지의 석방을 위한 활동을 결심하며 끝을 맺는다.

실제로 34년동안 복역중인 황용갑(66세)씨는 “우리는 젊은 청년도 그곳에서 다 보였고 옥중적 건강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요는 이제껏 간직해왔고 앞으로도 간직할 민족에 대한 사랑 하나입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작품은 장기수에 대한 비인간적인 전향강요, 그리고 그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관성있게 다루고 있는데 반해 김만석의 딸 순옥이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이 좀더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다뤄지지 못한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어느 무기수의 말처럼 우리는 교도소안의 38일이 걸려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들의 간혀 지낸 40여년 삶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을 느끼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수 밖에 없었다.

(이경애 기자)

## 당신으로 부터...

신입생 상우에게

너를 만난 것은 죽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온 것보다 더욱 기쁜 일이다. 그 기쁨은 단지 한 사람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너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버릇이 익숙하다. 너와 우리는 자기 삶의 이익을 위해서 일생의 한 시기를 잠시 같이 보내는 사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만남이 아니기에 너와 너의 동료들의 출현은 3월의 교정을 온통 들뜨게 만드는 것이라.

왜 우리는 자꾸 너와의 만남에 큰 의의를 두려고 하는 것일까. 어쩌면 혼란이 혼란 만남 중의 하나일지도 모르는데 왜 자꾸 깊은 무엇인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일까.

## 동학의 새내기들을 위하여

# ‘주인된 삶과 집단주의’

그것은 너와 우리의 만남이, 결국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지만 ‘집단주의적 생명체’로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핏줄로 세밀하게 이어진 세포와 세포처럼.

이 개인주의가 행해지는 시대에 집단주의란 말이 조금 오싹할지도 모르겠다. ‘집단주의’하면 ‘집단수용소’, ‘집단농장’, ‘독재체제’, ‘개성발달’ 등의 단어가 자동으로 연상되는 교육을 충분히 받아왔으므로.

왜 우리는 너에게 우리의 만남이 ‘집단주의적 생명체’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할까. 그것은 우리의 만남이 서로가 서로를 주인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너와 우리는 서로살 가까운 삶을 살아오면서 한편도 서로를 주인되게 하는 만남을 경험해본 적이 없

다. 서로를 주인되게 하는 만남이란 ‘좋은 친구’와는 전혀 격(格)이 다른 문제이다.

너와 우리는 민족적, 계급적 억압과 압박의 주범이 휘둘러지는 사회에서 그것에 맞고 그것에 코르타지며 그것에 부부를 맞고 고꾸라지는 그런 만남을 너무 자주 반복해왔다.

대항이란 바로 그런 억압에 대해 최초의 심각한 문제제기가 시작되는 곳이고 더불어 민중의 억압함을 하나씩 알아가는 자리이며 한발 앞서 나가면 그런 억압-민중적, 계급적 억압과 압박을 청산하기 위해 온 몸으로 항거하는 싸움터이다. 즉 대항은 자기와 사회의 운명을 하나로 여기고 자기와 사회의 운명을 함께 주인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자기와 사회의 운명을 주인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우선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오직 집단적 이익을 앞세우고 집단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 억압과 고통을 만드는 자는 철저한 개인주의자일 수 밖에 없다. 너와 우리는 개인주의라는 억압자가 씌어는 환상을 특별히 보고 서로를 주인되게 하는 삶,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삶을 함께 살아야 한다.

사랑과 의리가 넘치는 ‘집단주의적 생명체’야말로 참말 살맛나는 관계이고 모든 억압에 맞서는 가장 큰 무기이다.

(동국문화회)



송태영 (5)



## “스물 한살의 봄은 한번 뿐...”



▲ 아버지의 향사를 짓는 윤이영 (주)대우정화주 상무(투자기사윤순진)와 올해 대학에 입학한 큰딸 윤은아영

“아버지의 대학시절은 참 어려웠지. 옷이 마땅치 않아 군복을 물들여 입고, 복사기도 없어 필요한 자료를 일일이 다 손으로 옮겨 적어야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낭만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책다 여유라도 생기면 고무줄처럼 걸린 도끼고기찌게 막걸리를 시켜놓고는, 감분음막 열면 토론프로 밭이 새는 줄도 몰랐지. 너와 함께 교정을 거닐어보니 문득 그때의 젊은 열기가 배아오는 듯 싶구나. 아버지가 열사의 나라 리비아 모래사막을 돌고, 낯선 땅 나이지리아에서 슬한 어려움을 이겨내며 생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도 그때의 젊은 열정과 패기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아버지처럼 너에게도 스물 한살의 봄은 영원히 한번 뿐.

##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가 있습니다.